



김용구 교수

문학과 지성사/A5신/478면/18,000원

1866년 가톨릭교를 전파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 이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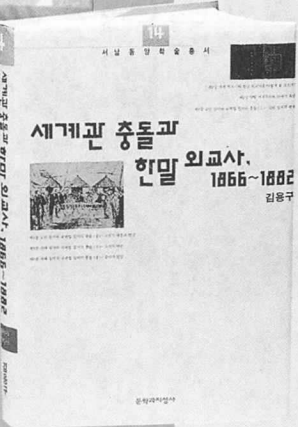
리의 불행한 근대 외교사는 시작됐다. 김용구 교수(64, 서울대 외교학과)가 펴낸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문학과지성사)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후 진행된 조선의 암울한 외교사를 다룬 저작이다. 김교수는 각종 조약과 사례 등을 꼼꼼히 분석해 근대 역사의 시작과 외교의 진행과정, 김홍집을 통한 조선의 새로운 외교정책, 조선과 일본의 교린 질서가 파괴되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조선과 중국 등의 관계 등을 고찰한다.

**문명권 충돌의 관점에서 외교사 해석해야**

방대한 기간·미간 문서의 면밀한 분석 끝에 탄생한 이 책은 19세기 한말 외교사를 '문명권 충돌'이라는 시각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교사 서술과는 구별된다. 김교수는 먼저 세계 외교사가 문명권들의 접촉이나 충돌의 역사라고 전제하면서 한말 외교사 역시 이런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문명권은 고유의 ‘정신구조’ 즉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는 이들의 세계관이 만나거나 충돌하는 것이죠. 외교문서 속에는 각 문명권이나 공동체의 세계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연구하면 이들의 세계관을 이끌어낼 수 있죠.”

김교수가 말하는 ‘문명권 충돌’은 언뜻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희재, 김영사)을



# 오해와 굴절로 점철된 근대 외교사의 진상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펴낸 김용구 교수

이 책은 1866년 프랑스의 조선 침략 이후 진행된 한말 외교사를 문명권 충돌이라는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김용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전통적인 사대 질서와 유럽의 공법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19세기 조선의 파행적인 외교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의 작업은 강대국 위주로 서술돼 왔던 지금까지의 외교사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떠올리게 하지만 그는 이 책이 헌팅턴의 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그는 탈냉전 시대 이전에는 하나의 문명권만이 세계를 지배해왔으며 탈냉전 이후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원적이면서 다문명적인 세계가 됐다는 헌팅턴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다.

“탈냉전 기간은 역사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문화나 문명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죠. 헌팅턴은 비교 문명권 연구의 전문가가 아닌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학’ 교수일 따름입니다.”

김교수의 작업은 국가 단위 혹은 강대국 위주로 서술돼왔던 지금까지의 세계 외교 연구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모든 행위자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영국이나 중국, 조선 또는 일본을 국제 정치의 같은 행위자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이 ‘유럽 중심주의’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세기의 파행적 외교가 오늘까지 이어져**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외교사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시다. 우리를 보는 열강의 관점을 그대로 차용해왔죠. ‘서세동점’이나 ‘전통과 근대’, ‘개국’이니 ‘쇄국’이니 하는 용어도 모두 이런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과 세계가 만나는 접점을 우리의 시각에서 새롭게 재조명해보고 싶었습니다.”

1866년에서 1882년은 조선이 이질 문명권과 처음으로 만나는 시기였다. 유럽의 폭력이 확산되는 끝지점에 위치한 조선은 사대 질서와 공법 질서간의 충돌이 격렬하게 전개된 지점이었다. 이 시기 조선의 세계 인식은 웨이위안의 《해국도지》와 쉬지위의 《영환지략》에 의거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들 저술로서는 열강의 국제 정치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문명권의 전파에는 완전한 이해나 수용보다는 오해와 굴절이 수반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대 질서와 유럽의 공법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한 한말 외교사는 세계 열강들의 폭력적인 외교정책과 우리의 세계 인식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김교수가 탈냉전시대인 오늘날, 19세기 조선의 외교사를 끄집어내 해부하는 이유는 바로 19세기 조선에서 발원한 국제 정치의 파행성이 오늘날까지도 한반도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시기에 비롯된 조선의 국제 정치 인식 태도가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문제인식이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수백년 동안 지속돼오는 역사적인 전염병”의 원인을 찾고 치유하기 위해서다.

김교수는 내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의 학문적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이 책은 《양철 체제와 한말 외교사, 1882~1892》와 《세계 외교사와 한말 외교사, 1892~1905》로 이어질 그의 ‘한말 외교사 3부작’ 가운데 첫번째 성과물이다. — 최갑수 기자